

휴양환경 이용수준에 대한 방문객의 적응 및 대응행동

- 북한산 국립공원 소귀천 탐방로를 대상으로 -

허학영* · 안동만**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Visitor Adjustment and Coping Behavior for Use Level in a Recreational Setting

- A Case Study of Bukhansan National Park -

Heo, Hag-Young* · Ahn, Tong-Mahn**

*Ph D.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erceived crowding is known as a necessary method to evaluate social carrying capacity in recreational settings. Bu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perceived crowding, use density, and satisfaction have shown weak and indirect correlations. The theory of visitors' adjustment is one of several possible explanations for this poor relation. But the validity of the visitors' adjustment theory has not been not inspected clearly.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visitors' adjustment theory and to examine visitors' adjustment to the overuse of recreational settings.

Study hypotheses were formula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related to visitors' adjustment in recreation density. Four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inspected with the case study, i.e., 1) Rationalization : Visitors' satisfaction isn't related to use density in recreation setting, 2) Product-shift : Preference norm is related to current use density, 3) Self-selection : Visitors' satisfaction for the use level is generally high, and 4) Displacement : Norm interference is related to willingness to revisit.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during May and June, 2001.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urvey, visitors adjust to overuse of recreation setting through rationalization and product shift (hypotheses 1/2 acceptance). Current use density isn't related to visitors' satisfaction and willingness to revisit (see table 3). And visitors'

preference norm is modified by situation (see table 4). Visitors' satisfaction and willingness to revisit don't show a high correlation but moderately high (see table 5, hypothesis 3 acceptance). Differences between visitors' preference norm and current use density is norm interference. Norm interference isn't related to willingness to revisit (see table 7). Therefore, the norm interference concept is not a useful method to explain visitors' adjustment to the degree of overuse in a recreational setting (hypothesis 4 rejection).

As for future directions, the following are proposed: 1) correctly understanding and reestablishing the visitor norm and norm interference concept, 2) introducing a composite research method to monitor visitors' behavior and survey visitors' attitudes and coping responses. These efforts would be helpful in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recreational settings to improve the quality of visitors' experiences.

Key Words : Recreational Setting, Coping Response, Social Carrying Capacity, Norm Interference, Crowding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휴양환경의 혼잡지각은 휴양환경에서의 사회·심리적 수용력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가치를 인정받아왔으나, 선행연구들은 밀도와 혼잡지각 그리고 방문객 만족도 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서 기대와는 달리 미약하거나 간접적인 관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휴양환경의 이용밀도, 혼잡지각, 방문객 만족도의 미약하거나 간접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연구자들의 반응은 1)휴양환경 밀도보다는 심리·환경적 변인의 중요성 강조, 2)방문객 스스로 경험수준을 재조정하거나 재개념화하여 상황에 적응하려한다는 설명이론, 3)혼잡지각 측정도구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 및 대안적인 측정 도구 제안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이훈, 2000).

현재 휴양환경 관리에 관한 연구는 혼잡규범(Crowding Norm) 산정,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인특성인 동기, 기대, 선호, 경험수준 등, 타인의 특성인 집단의 유형과 규모, 행동 등, 상황변수인 대상지역 내의 위치, 주변 환경들과 연계된 연구들이 수행(Manning et al., 1999; Stewart, 1999; Floyd, 1997)되

고 있으나, 방문객 스스로 경험수준을 재조정하거나 재개념화하여 상황에 적응하려한다는 설명이론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이를 휴양환경관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휴양환경 이용수준에 대한 방문객의 심리적 적응 및 대응행동에 대한 관련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휴양환경의 이용수준과 방문객 만족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이의 검증을 위한 사례조사를 통해 방문객 스스로 경험수준을 재조정하거나 재개념화하여 상황에 적응하려한다는 설명이론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이의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휴양환경 이용수준과 혼잡지각이나 만족도의 미약한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들의 고찰을 통해 휴양환경의 이용수준에 대한 방문객의 적응과 대응행동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사례조사를 통해 휴양환경의 이용수준에 대한 방문객의 적응과 대응행동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사례조사 대상지는 단위면적 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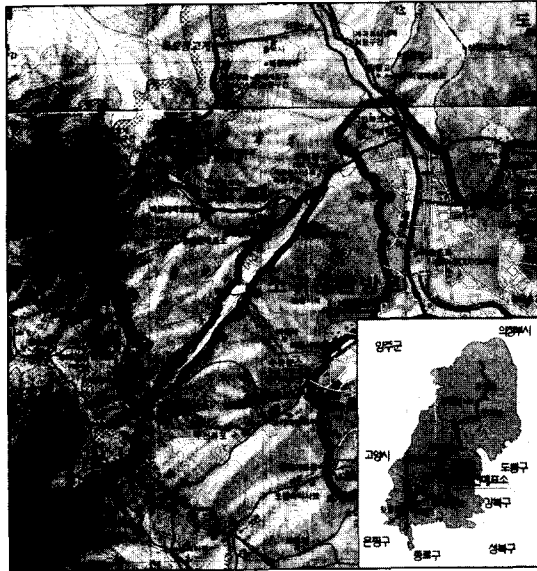


그림 1. 대상지 위치

은 과도한 탐방압력으로 자연생태계가 점차 훼손되고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소귀천 탐방로¹⁾를 대상으로 하였다.(그림 1 참조)

2) 연구 방법

휴양환경의 이용수준과 방문 경험에 관한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휴양밀도와 방문객 적응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사례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이의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례조사 방법은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설문 구성은 휴양환경 이용수준에 대한 방문객의 심리적 적응 및 대응행동에 대한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자들로써 방문객 개인적 특성 파악을 위한 탐방로 방문동기, 방문횟수와 방문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만족도, 재방문 의사, 그리고 선호규범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는 10점 척도로 매우 불만족은 1점, 매우 만족은 10점으로 하였다.

사례조사는 2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1차 조사에서 휴양환경 이용수준에 대한 선호규범은 탐방로 단위구간 50m의 선호하는 밀도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현재이용밀도는 설문조사 시 단위구간 50m의 이용밀도를 측정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휴양환경 이용수준에

대한 선호규범과 현재밀도는 이용자가 경험한 전 구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경험한 단위구간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현재이용밀도 조사 시 1차 조사는 단위구간에 대한 물리적 밀도를 사용한 반면 2차 조사에서는 심리적 밀도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2차 조사 시 전체구간 이용자수에 대한 현장계측이 다양한 탐방로 구간으로 인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리적 밀도와 심리적 밀도의 혼용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이 1, 2차 조사결과의 단순비교가 아니고 단위구간 이용경험과 전체구간 이용경험에 대한 차이 파악을 포함한 가설검증에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조사 내용 및 방법은 표 1과 같으며, 사례조사결과의 분석은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 for Windows Rel. 9.0(SPSS Inc., 2000)을 이용하였다.

표 1. 조사 내용 및 방법

	1차 조사	2차 조사
이용수준에 대한 선호규범	·탐방로 50m 구간의 선호하는 이용밀도: 설문	·이용자가 경험한 전 구간의 선호하는 이용밀도: 설문
현재 경험한 이용밀도	·설문조사시 탐방로 50m 구간의 순간 이용밀도: 현장 계측	·이용자가 경험한 전 구간의 현재 이용밀도: 설문
조사 지점	·탐방로 중간 휴식공간	·탐방로 입구부분
조사 대상자	·등산·하산 이용자 모두 조사	·하산하는 이용자 조사
비 고	·현재이용밀도 조사가 용이하지만, 전체이용 밀도를 대신 하지 못함.	·경험한 등산로구간을 추가조사 ·현재 이용밀도에 대한 측정을 등산 전에 부탁하였음.

II. 휴양환경 이용수준과 방문객의 적응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휴양환경 이용수준과 방문객 대응행동

휴양환경 이용수준에 대한 방문객 적응(adjustment)과 대응행동(coping behavior)은 휴양환경의 이

용수준을 방문객이 원하는 정도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이것은 특히 야생지역의 관리에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에(Hammit *et al.*, 1991), 효과적인 휴양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휴양환경 이용수준과 방문객만족도의 직접적 관련성 설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것으로는 1)합리화(Rationalization), 2)성과 변환(Product Shift), 3)자기선택(Self-Selection), 4)대체(Displacement) 등이 있다(Heberlein and Shelby, 1977; 1986).

1) 합리화

부조화와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사고를 재조정한다는 Festinger(1957)의 이론을 도입하여, 대부분의 휴양객들이 내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실제 휴양환경에 관계없이 그들의 휴양경험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휴양경험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 부정적인 것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으로 이용자가 초기 자신이 기대했던 휴양경험의 수준에 맞도록 적절하게 자신의 만족도를 유지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말한다.

대부분의 방문자는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휴양지에 방문하기 때문에 자신을 불만족한 심리상태로 만들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Kuentzel and Heberlein, 1992). 김남조 등(2000)은 강원엑스포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혼잡지각이 '전반적인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혼잡 때문에 자신의 만족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심리적 합리화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2) 성과 전환

레크레이션 경험에 있어서 성과는 방문객들이 마음에 달려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나타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방문객이 야생의 경험(wilderness experience)을 느끼기 위해 어떠한 장소를 찾았다면 이는 타인의 조우를 거의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조우 수가 많아진다면 방문객은 실제로 그 장소를 떠나 버리는 것 외에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하나는 불만

족스러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경험에 대한 재평가이다. 후자의 경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정의를 야생의 경험에서 개발된 등산로의 경험으로 재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재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성과 전환이다.

즉 휴양환경 이용밀도가 낮은 경우에서 이용밀도가 높아질 경우 방문객들은 그 장소에 대한 적정밀도 수준에 대한 자신의 규범적 정의를 조정한다. 이것은 레크레이션 경험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변화시킴으로서 과도한 조우로 인한 만족도 저하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성과 전환 가설은 Hendee *et al.*(1978)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아직은 실증적인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Shelby and Heberlein, 1986).

3) 자기 선택

Shelby and Heberlein(1986)은 이용밀도와 만족도와 의 상관관계 부족에 대한 설명의 하나로 레크레이션은 개인의 자기선택(Self-Selection)이라는 것을 들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 활동을 선택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피한다는 것이다. 방문객의 기대가 실질주의적인(realistic)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휴양환경의 이용 수준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그 경험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높은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레크레이션 활동은 개인의 자율선택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선택에 따른 휴양경험에 대해서 이용수준에 관계없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4) 대체

방문객의 장소를 떠나는 행동 등을 통해 이용수준이 조절되어서 전체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즉 밀도가 높아져서 만족도가 떨어지면 이동이 일어나 밀도가 다시 낮아져 만족도가 다시 높아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만족도를 유지한다. 이것은 불만족한 사람은 다른 저밀 지역을 찾고, 이 지역은 고밀에 대해 덜 민감한 사람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Hammit *et al.*(1991)은 사회적 대응행동(social coping behavior) 6가지와 물리적 대응행동(physical coping behavior) 6가지²⁾를 제시하고 다른 이

용자와의 조우(encounter)나 상호영향(interaction)을 피하기 위하여 대응행동(coping behavior)을 행하는 빈도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물리적인 대응행동이 사회적 대응행동보다 행하는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obertson *et al.*(1994)은 최근경험의 만족도와 대상지 변경(displacement)이 관련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대상지 변경한 사람은 대상지를 변경하지 않은 사람보다 이전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all *et al.*(2000)은 Lake Billy Chinook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통해 혼잡으로 인해 그들의 방문을 변경시킨 경험이 있는지를 시간적인 변경(Temporal displacement)과 공간적인 변경(Spatial displacement)를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다.

2. 혼잡에 대한 계층적 반응 모델

Kuentzel and Heberlein(1992)은 휴양환경의 이용증가로 인한 혼잡지각의 차이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계층적 반응모델(Perceived Crowding hierarchical Coping Model)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이용증가에 따른 혼잡지각에 대한 반응을 태도와 행동으로 구분하고, 혼잡지각이 높을수록 인지적 반응(cognitive coping)에서 동일 장소내의 대체, 다른 장소로 떠나는(leave) 반응이 점차적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이 가설의 타당성 검증에는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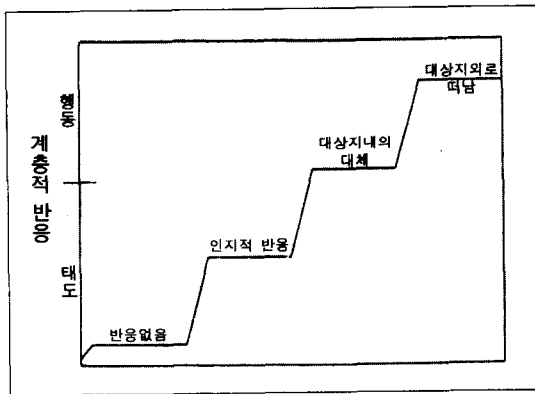


그림 2. 인지된 혼잡에 대한 계층적 반응 모델
자료: Kuentzel and Heberlein, 1992

3. 휴양환경 이용수준과 방문객 적응에 대한 가설 설정

휴양환경 이용수준과 만족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레크레이션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 이용한 단순한 이용밀도나 “인지된 혼잡에 따른 방문객의 계층적 반응 모델”을 이용하여 검증하는데는 실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휴양환경의 이용수준에 대한 방문객의 적응과 대응행동에 대한 개념을 방문객 선호규범과 현재경험밀도의 차이인 규범간섭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그림 3 참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표 2의 내용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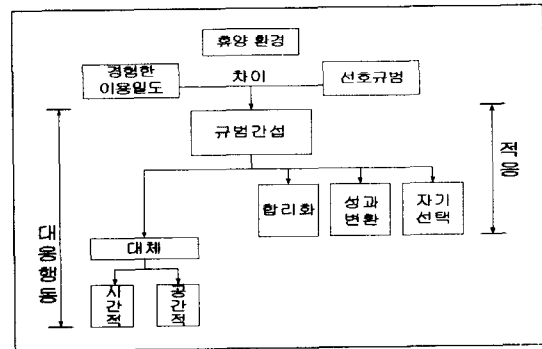


그림 3. 휴양환경 이용수준에 대한 방문객 적응과 대응행동

표 2. 용어 설명

용어	정의	사례
규범	• 사회적 환경 속에서 활동, 행위, 주변의 상황을 평가 하는데 이용되는 개인적인 기준(Vaske <i>et al.</i> , 1986)	• 탐방로에 대한 방문객이 선호하는 이용밀도는 10명이다.
규범 간섭	• 휴양환경 이용밀도에 대한 선호규범과 현재상태와의 차이를 말함.	• 탐방로의 현재 이용자가 20명이라면, 선호규범과 10명의 차이 발생. 이 차이를 규범간섭이라 함.
합리화	• 실제상황과는 관계없이 응답자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레크레이션 경험을 높이 평가	• 선호하는 이용밀도와 10명이라는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이용밀도가 아닌 다른 긍정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 자신의 경험을 합리화
성과 변환	• 휴양경험에 대한 그들의 규범적 정의를 조정.	• 탐방로의 적정밀도를 20명으로 규범적 정의를 조정함.
대체	• 불만족한 사람은 다른 저밀 지역을 찾고 이 지역은 고밀에 대해 덜 민감한 사람으로 대체됨	• 선호규범과 10명의 차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나 다른 장소를 택함.

1) 가설 1

합리화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실제 이용 수준과 상관없이 응답자가 자신의 내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레크레이션 경험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휴양환경 이용밀도와 방문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반드시 합리화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관계설명이 합리화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방문객이 휴양환경에서 선호하는 이용밀도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용밀도가 상이할 경우 이러한 차이에 대한 반응이 방문 만족도와 연관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합리화에 대한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휴양환경 이용수준에 대한 합리화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 휴양환경의 이용밀도는 방문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2) 가설 2

Product Shift는 자신의 레크레이션 경험을 재평가하는 것으로서 방문객의 휴양 경험과 재평가의 인과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전제 하에 공변화(covariation)의 입증, 시 순위(time order), 사실성의 입증(eliminating spurious relation)이 있어야 한다(윤성채와 최종후, 1999).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회귀분석을 통하여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일변수를 이용한 인과관계 설명이 큰 의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방문객이 경험한 이용밀도와 선호하는 이용밀도인 선호규범이 공변화하는 특성에 중점을 두어 방문 경험과 이에 대한 재평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가설 2 : 현재 이용밀도와 선호규범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3) 가설 3

레크레이션 활동은 개인의 자율선택에 의해 이뤄지

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선택에 따른 휴양경험에 대해서 이용수준에 관계없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율선택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3 : 휴양경험에 대한 방문객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을 것이다.

4) 가설 4

방문객이 장소를 떠나는 행동을 통해 이용수준이 조절되어서 전체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불만족한 사람은 다른 저밀 지역을 찾고, 이 지역은 고밀에 대해 덜 민감한 사람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경험한 휴양환경의 이용수준과 재방문의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밝히기 위해 규범간섭(norm interference)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4 : 선호규범과 현재 이용밀도와의 차이(규범간섭)는 재방문의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III. 사례조사 결과

사례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설문조사와 현장계측을 실시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1년 5월 19일(토)과 20일(일)에 1차 조사는 총 86부를 실시하였으며, 6월 10일(일)에 2차 조사는 총 71부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63%, 여자 37%로 남자가 다소 많이 이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40대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30대와 50대가 14% 60세 이상이 1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은 50% 이상이 대졸이상 이었으며, 고졸은 35% 정도로 나타났다.

단위구간 이용경험과 전체구간 이용경험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1차에서는 단위구간 50m의 이용수준을 조사하였으며, 2차에서는 전체구간 이용수준을 조사하였다(표 1 참조).



그림 4. 소귀천 탐방로 이용현황

1. 휴양환경 이용수준과 방문객 적응에 대한 가설검증

1) 가설 1 검증

방문객이 휴양환경에서 선호하는 이용밀도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용밀도가 상이할 경우 이러한 차이에 대한 반응이 방문 만족도와 연관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심리적인 합리화를 거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가설 1은 "휴양환경 이용밀도는 방문 만족도와 상관관계 없다"는 것으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재밀도와 전체만족도, 재방문 의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피어슨(Pearson)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현재밀도와 만족도의 상관분석결과

		전체만족도	재방문 의사
현재 밀도	1차 조사	-0.037(0.735)*	-0.024(0.826)
	2차 조사	-0.019(0.876)	-0.060(0.620)

*: 화를

1차, 2차 조사에서 모두 현재밀도는 전체만족도, 재방문 의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하지만 휴양환경 이용밀도가 방문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반드시 합리화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다만 이러한 가설의 채택은 휴양환경 이용밀도에 대한 심리적 합리화를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가설 2 검증

방문객이 경험한 이용밀도와 선호규범이 공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현재 이용밀도와 선호규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1차 조사에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상관계수가 0.256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상관계수가 0.256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가설 2를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현재밀도와 선호규범의 상관분석결과

	선호규범	
	1차 조사	2차 조사
현재밀도	0.256(0.017)*	0.706(0.000)

*: 화를

2차 조사는 유의수준 0.01에서 상관계수가 0.706으로 단위구간을 이용했을 경우와는 상이하게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차 조사 결과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차 조사결과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2는 채택되었다. 1차 조사결과와는 상이하게 2차 조사결과에서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비교적 짧은 거리인 50m에서는 현재밀도라는 비교기준 없이 자신의 선호규범을 나타내지만, 먼 거리인 전체구간에서는 현재 상태를 비교척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2의 채택은 방문객이 경험한 이용밀도와 선호규범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미약하지만, 이 두 변수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가설 3 검증

레크레이션 경험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휴양 경험에 대한 방문객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를 조사하였다. 방문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평균값이 6~7점대(10점 척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가 아주 높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중간 이상이기 때문에 방문객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표 5. 방문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의 평균값

	전체만족도	재방문 의사
1차조사	6.97	6.72
2차조사	7.66	6.01

참고로 방문횟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처음 방문한 사람과 여러 번 방문한 사람을 구분하여 그룹간 전체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방문횟수에 따른 만족도와 재방문의사

		평균	표준편차	t-값	확률	
1차 조사	만족도	처음 방문	6.95	1.84	-0.046	.963
		2회 이상	6.97	1.91		
	재방문 의사	처음 방문	6.58	2.69		
		2회 이상	6.76	2.08		
2차 조사	만족도	처음 방문	7.00	2.08	-1.260	.212
		2회 이상	7.81	2.10		
	재방문 의사	처음 방문	5.69	1.49		
		2회 이상	6.09	1.06		

4) 가설 4 검증

규범간섭이 재방문 의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규범간섭과 재방문 의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1차, 2차 조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4는 기각되었다. 규범간섭이 커지면 재방문 의사가 떨어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두 변수는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규범간섭과 재방문의사의 상관분석결과

	재방문 의사	
	1차 조사	2차 조사
규범간섭	-0.135(0.214*)	0.034(0.779)

*: 확률

2. 휴양환경 이용수준에 대한 방문객 적응정도

휴양밀도에 대한 규범간섭과 재방문 의사(Willingness to Revisit)와의 관계식을 통해 방문객의 과밀에 대한 적응정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규범간섭과 재방문 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관계식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휴양환경의 이용수준에 대한 방문객의 적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방문 의사와 규범간섭의 단순한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I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방문객은 휴양환경에서 발생하는 규범간섭(선호규범과 경험한 밀도의 차이)을 합리화와 성과 변환을 통해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가설 1 채택, 가설 2 채택), 이러한 결과는 북한산을 찾는 방문객이 자신이 선호하는 이용밀도보다 현실의 이용밀도가 다소 높더라도 방문 만족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휴양환경에서 발생하는 규범간섭이 방문객의 재방문 의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휴양환경 과밀이용에 대한 방문객의 적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서 규범간섭과 재방문 의사의 단순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유용한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가설 4 기각).

본 연구에서 방문객은 휴양환경 과밀이용에 대해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방문객이 심리적으로 적응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심리적 적응정도를 파악한다면 이는 휴양환경의 이용수준을 방문객이 원하는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특히 국립공원

과 같은 야생의 성격을 지닌 지역(wildland areas)의 관리에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방문객이 선호하는 이용 수준이 그 지역의 적정 이용밀도라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이용밀도에 대한 방문객의 심리적 적응정도를 포함한 이용밀도를 그 지역의 최대 이용밀도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방문객의 선호규범과 만족도, 재방문 의사 등의 측정방법이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으며 둘째, 설문조사만으로 휴양환경 이용수준에 대한 방문객의 적응 및 대응행동을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휴양환경 이용밀도에 대한 방문객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반응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대상지 선정 등을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휴양환경 이용수준이 방문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의 선호규범과 규범 간섭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더불어 휴양환경 이용수준에 따른 물리적·심리적 반응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설문조사와 방문객 행태 관찰의 병행 및 방문객의 개인 특성이나 상황변수 등을 복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휴양환경에서의 방문객에 대한 환경심리학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휴양환경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방문객 경험의 질을 고려한 휴양환경관리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대응 :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야영장 이동, 조우수가 적은 시간대에 여행을 계획, 유명한 장소를 의도적으로 피함, 성수기의 이용을 피함, 등산하기 어려운 곳을 의도적으로 선택, 잘 관리되지 않는 등산로를 선택

인용문헌

1. 김남조, 정철, 박상현, 김진선(2000) 사회적 수용력의 혼잡기대, 혼잡지각, 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4(1): 243-257.
2. 윤성재, 최종후(1999) 연구조사방법의 이해. 서울: 세창출판사.
3. 이 훈(2000) 혼잡지각 측정도구 비교검증 - 만족도 및 설명변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 *관광학연구* 24(2): 93-115.
4. Festinger, L.(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CA:Stanford University Press.
5. Floyd, Myron F.(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Concern and Acceptability of Environmental Impacts among Visitors to Two U.S. National Park Settings.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51: 391-412.
6. Hall, Troy and Bo Shelby(2000) Temporal and Spatial Displacement: Evidence from A High-Use Reservoir and Alternate Sit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2(4): 435-456.
7. Hammit, William E. and M. E. Patterson(1991) Coping Behavior to Avoid Visitor Encounters: Its Relationship to Wildland Privac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3): 225-237.
8. Hendee, J. C., R. N. Clark and T. E. Dailey(1978) *Wilderness Management*. Washington D.C.: USDA Forest Service Miscellaneous Publication No. 1365.
9. Kuentzel, W. F. and T. A. Heberlein(1992) Cognitive and Behavioral Adaptations To Perceived Crowding: A Panel Study of Coping and Displace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4): 377~393.
10. Manning, Robert E., W. A. Valliere and B. Wang(1999) Crowding Norms: Alternative Measurement Approaches. *Leisure Sciences* 21: 97-115.
11. Robertson, Robert A. and J. A. Regula(1994) Recreational Displacement and Overall Satisfaction: A Study of Central Iowa's Licensed Boater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2): 174-181.
12. Shelby, Bo, and T. A. Heberlein(1986) *Carrying Capacity in Recreation Setting*. Oregon State University Press.
13. SPSS Inc.(200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Chicago, Illinois.
14. Stewart, William P.(1999) In Search of Situational Effects in Outdoor Recreation: Different Methods, Different Results. *Leisure Sciences* 21: 269-286.
15. Vaske, Jerry J. and Bo Shelby(1986) Backcountry Encounter Norms: Theory, method and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3): 137-153.
16. <http://www.npa.or.kr/pukan/npa/intro.htm>

주 1. 소귀천탐방로의 개념은 숲길에서 배우는 진선미의 길로서, 탐방거리는 약 1.0km이며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이다. 대동문에 이르는 길을 포함하면 2.25km로서 소귀천 계곡과 진달래 능선을 끼고 있다(<http://www.npa.or.kr/pukan/npa/intro.htm>).

주 2. 사회적 대응 : 야영장에서 타인과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피함, 등산로에서 타인과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피함, 타인을 반기기 시작함, 여행계획에 대한 생각을 변경, 동행그룹과의 상호작용을 시작, 타 그룹과의 상호작용을 시작